

특집2

‘도랑에서 서해까지’
충남의 하구생태복원 의지와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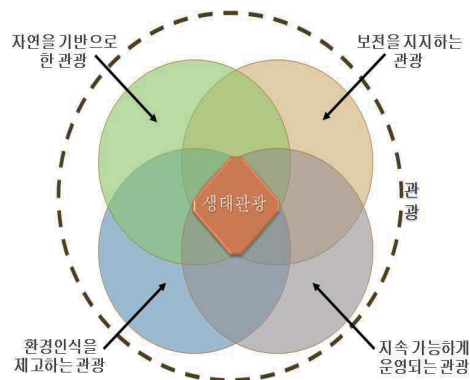
높은 가치의 서해연안 생태관광

이인배 _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생태관광의 특성과 지역발전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생태관광이다. 생태관광은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생태관광을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생태관광 틀 (Buckley 1994)

자료 : 김민혜, 2009, '관광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생태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저해요인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의 자본보다는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델로서 지역주민의 개개인, 지역 업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의 네트워크 및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방문객의 경우 건강한 생태자원을 통한 관광활동의 만족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관광에 대한 만족감이 극대화 되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운영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다시 생태보전에 투입한다. 이로 인해 보전되며 복원된 생태자원의 경우 생태관광 상품성 및 시장 경쟁력을 높여 수익의 증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관광은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의미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생태관광의 경우 수익 또한 지역 내에서 순환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주민의 직접적인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의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자발적인 보호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의 생태자원이 보전되는 결과를 낳는다. 뿐만아니라 생태관광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생태자원이 보전되는 등의 장



점을 지니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역민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등의 사회적 장점도 지니고 있다.

[표 1] 생태관광 특성

구분		세부내용
환경적 지속성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소비 최소화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진 ● 수용력 기반 관광객 수 제한을 통해 자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수용력 기반 소규모 개발 지향 ● 관광객의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자연 및 문화 경관의 보전 ● 친환경 생산활동(유기농재배 등) 및 친환경건축 도입 ● 생태관광 편익 일부를 보전활동에 환원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문화·자연 매력물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참여 ● 대상지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생태관광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생태관광 관련 주민간 갈등의 이해와 저감 노력 ●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이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문화적 지속성	환경인식 증진 및 양질의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제공 ● 지역사회와의 교류기회 확대 ● 자원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 제공
	경제적 편익창출 및 합리적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전통적 경제활동 보전 ● 관광의존도를 낮춤 ● 지역을 대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매력요소 발견 및 개발에 초점을 둬으로써 시장 경쟁력 확보 ● 지역역량에 부합하는 공급량 산정 (외부자본 유입 및 편익누출 최소화) ● 지역생산물을 1차적으로 이용한 상품 개발 ● 지역생산물의 상품화로 관광이외 지역경제활동의 매력성 증진

자료 : 정옥식·김경태, 2015, 「유부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녹색성장포럼

■ 국내 생태자원의 현황과 생태관광 정책 동향

생태관광자원은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장소,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장소에 해당하는 생태관광지는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사업지(20개소), 자연(국립·도립·군립)공원(76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26개소), 습지보호지역(24개소), 해안사구(33개소), 자연동굴(33개소), 특정도서지역(164개소), 하구역(19개소), 철새도래지(15개소), 문화생태탐방로(10개소), 숲길(8개소), 생태문화탐방로(24개소) 등이 있다. 그리고, 생태관광시설로는



자연환경보존 및 이용시설(37개소)와 생태관광프로그램으로는 국립공원 생태관광프로그램(92개),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194개), 4대강 생태관광프로그램(22개), 지자체추천생태관광프로그램(78개) 등이 있다.

앞의 생태관광지에서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지의 종류는 내륙습지, 연안습지, DMZ, 철새도래지, 산과 강, 섬, 해안사구, 화석·동굴 등이 있다. 이들은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으로써 충남의 서해안지역에도 다수가 입지하고 있다.

생태관광 정책 동향으로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및 녹색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질 높은 여행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인 환경보전과 관리 등을 목표로 하여 한국적 특성이 담긴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적 특성이 담긴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6대 전략

전략1 : 국민들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확충

- 자연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 확충
- 생태·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생태마을 조성

전략2 :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문화·역사·전통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략3 : 홍보와 마케팅으로 수요창출

- 생태탐방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생태관광 정보 제공
- 생태관광 마케팅으로 생태관광 수요 창출

전략4 : 우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으로 국가 환경가치 제고

-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 생태관광으로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전방안 마련

전략5 : 제도정비

-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인증제 도입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 주민참여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및 부처간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전략6 :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성공모델 창출
- DMZ, 백두대간 등 한국적 특성이 담긴 관광자원 개발 확대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생태관광 특성화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생태관광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충남 서해안 생태자원의 특성과 활용성

충남의 서해안은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생태자원이 숨겨진 보고이다. 우선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지 중에서 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충남 서산시 천수만의 철새도래지는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0여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이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는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환충기능을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구이다.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으로는 충남에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국내에서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에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독산리 일원에 해안사구 및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지로 소항사구가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의 신두리사구 해역이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가 2015년까지 전국에 총 2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충남에 충남 태안군의 두웅습지와 서천군의 서면·유부도 일대의 서천갯벌 등 2개소가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두웅습지가 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로 희귀야생동·식물 서식지로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종천면 일원에 서천갯벌에 검은머리물떼새 서식과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내에 있는 주요 해안사구로는 충청남도에 원청(태안군), 소항(보령시), 구례포(태안군), 삼봉(태안군), 신향(서천군), 원산(보령시), 오봉(보령시), 삼시도(보령시), 운여(태안군) 등 9개소가 있다.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특정도서지역은 나무섬, 남작도, 대길산도, 대청도, 오도, 추도, 횡건도, 흑어도, 옥도, 묘도, 북격렬비도, 곳도, 묘도(토끼섬), 솔섬, 외횡건도, 변도, 오도, 석도 등 18개소이다.

또한, 국내의 주요 철새도래지로서 충남 서해안에는 충남 서산시 천수만, 서천군 금강하구둑과 유부도, 태안 난도팽이 갈매기 서식지, 아산시 아산호 등이 있는데 아산호는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으로는 '태안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 사구가 되살아나는 희망여행'과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등이 있다. 그리고, 생태해설프로그램으로 '모래언덕이 늘어났어요(기지포 자연관찰로)', '살아있는 몽산포 갯벌이야기', '살아있는 연포갯벌이야기', '한 눈에 보고 느끼는 몽산포 해안생태계', '한 눈에 보고 느끼는 학암포 해안생태계', '폐각



〈그림 2〉 UNWTO 사업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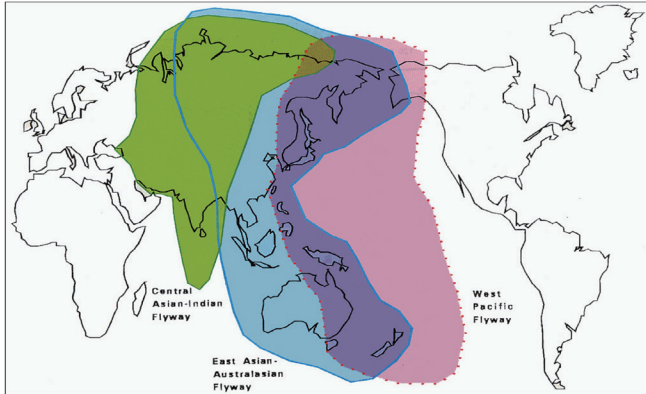
자료 : UNWTO 웹사이트, 2015



을 활용한 나만의 바다 만들기, '염전이야기', '독살 이야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멸종위기종을 찾아서' 등이 있다. 더불어 지자체 추천 생태관광프로그램은 서산시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서산 생태관광과 서천군의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어메니티 서천 체험 등이 있다.

특히, 서천군의 금강하구둑 앞 바다에 있는 유부도는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국제적인 습지보호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유부도는 중요 습지를 판단하는 국제 기준을 3가지 이상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중요 습지이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UN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주도하는 이동경로상의 생태관광지 운영의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Birdlife International 등과 같은 국제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부도를 비롯한 금강하구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상의 등록된 거점 서식지이며, Birdlife International 아시아 지부에서는 본 네트워크상의 388개 서식지 중 핵심서식지 11곳을 선정하였는데 금강하구(유부도)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충남 서해연안의 생태자원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기구와 중앙정부의 보존자원으로도 다수가 등록되거나 지정되어 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과 사구, 철새 등의 희귀동식물, 섬과 해안경관 등은 생태자원으로서의 보존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활용가치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동아시아대양주철새네트워크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자료 : 정옥식·김경태, 2015, 「유부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녹색성장포럼

■ 선순환으로 서해안 생태관광의 가치를 제고하자

충남의 서해안은 강과 육지로부터 유출된 담수가 하구역에서 만나고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이다. 여기에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기능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잘 보존하면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가치가 매우 큰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남의 서해안이 보유하고 있는 해안자원 중 가치가 큰 생태자원을 발굴하여 잘 보존하면서, 그 생태자원은 해당 지역의 환경에 맞도록 해안의 자연생태계가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은 원형을 유지토록 하고,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생태자원은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태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자원으로서 경제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해야 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생태자원의 보존과 생태관광의 활용은 주민이 선도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의 추진생태계가 구축되어 지역발전에서도 선순환의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생태관광을 위한 사업에도 동시에 지역주민참여가 이루어져 양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생태자원을 생태관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시설개발보다는 최소한의 관광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간접적인 시설이나 공간을 통한 생태체험이나 적절한 방문객을 유치하여 해설과 답사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여행 프로그램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서해안의 생태관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생태계와 지역발전 생태계가 선순환을 통하여 달려갈 때 수레의 두 바퀴가 맞물려야 잘 굴러가듯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혜, 2009, 「관광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녹색관광 발전전략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생태관광 통계조사」
- 정옥식·김경태, 2015, 「유부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녹색성장포럼
-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2008,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UNWTO 웹사이트, 2015

